

강원 지역제한 입찰사업 확대되나

연초 강원도의 공언대로 도내 지자체 발주공사에 지역건설사 수주가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8일 도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해시는 이달 907억원 411건의 공공공사를 조기발주 대상사업으로 정했다. 분야는 도로, 방재, 주민숙원, 상하수도, 관광시설 등 5개 분야다. 관련 사업은 이미 지난달 측량, 설계를 완료해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한다.

동해시는 발주계약을 시행하면서 관내 건설업계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지역 제한 입찰,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 발주 사업에서 지역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하면 사업은 분할발주 방식을 사용해 지역업체 선정을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의 경우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발주금액 2억원 미만 공사일 경우 관내 수의견적입찰이 가능하다. 이 입찰은 일례로 삼척시의 경우 삼척시 소재 건설사로만 입찰이 가능한 방식이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삼척시면 삼척시 업체만으로 입찰을 할 수 있다. 도로나 교량 같은 경우 공구분할로 분리해 발주

동해시, 지역사 선정 극대화위해 411건 공공공사 분할발주 등 고려
道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 기대”
업계 “담당 공무원 의지가 문제”

를 내면 된다”며 “국가계약법을 보면 분리나 분할 발주를 금지하고 있지만 단서 조항에 효율성을 따져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분할발주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 건설업계에선 동해시를 시작으로 도내 지자체의 도 건설사 지역제한 입찰사업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 차원에서 연초 지역 발주 비율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지난해보다 늘린 만큼 지역제한입찰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도내 건설사가 사업을 도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도 강원도 건설업

체들의 도내 계약비중은 특히 낮다.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7~2016년) 강원지역 종합건설업체의 강원도 발주 물량 확보율은 평균 32.85%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기간 물량 확보율이 가장 높은 서울(71.59%)의 45.88% 수준이다.

관건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지라는 게 도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발주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분할 발주를 추진할 경우 공사 중 관리해야 할 건설사의 수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실제 도 혹은 도 산하 수뇌부가 지역 건설사 발주를 확대하려 해도 실무자 선에서 막히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설명이다.

일례로 300억 규모로 10km 거리의 하천 정화 혹은 제방사업을 발주할 경우, 실무 선에선 1회에 1개 업체만 관리하면 되지만 분할할 경우 최소 3개 업체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위에서 지역 발주르 높이라고 지시해도 계약담당자나 현장관리 등 기술 실무진에선 ‘관리상’의 문제를 언급할 경우 쉽게 수긍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강원도, 양양공항 하계기간 7개 노선 개설 확정

강원도는 28일부터 11월14일까지 운영되는 하계시즌에 양양국제공항에서 하노이, 호찌민 등 7개 노선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노선별로 28일부터 11월1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2개 노선이 운항된다. 31일부터 10월26일까지 김해, 제주, 기타큐슈 3개 노선이 운항된다. 6월5일부터 9월14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2개 노선이 운항된다.

이번 하계시즌엔 7개 노선에서 총 708회 운항으로 4만2359명이 공항을 이용하게 된다.

양양국제공항을 이용해 도를 방문하는 베트남 및 러시아 관광객들은 도내 2박3일간 체류 일정으로 낙산사, 설악산, 신흥사, 권금성 케이블카, 소양강 스카이워크, 남이섬, 오죽헌, 선교장, 안목 카페거리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노선 고객유치를 위해 현지 여행사 대상으로 강원도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동남아 노선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